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키리코스와 성 율리타 순교자

마태오 제 5주일

성 파이시오스 수도자,  
성 브로클로, 성 일라리온 순교자,  
베로니카 수녀

제 4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4조 부활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서 10:1~10 / 봉독서 154
- 복음경 : 마태오 8:28~9:1 / 110, B 3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키리코스와 성 율리타 순교자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 교회에 박해가 만연했던 힘든 시기에 박해자들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창창한 나이의 남녀 청년들, 점잖은 백발의 어르신들, 어린이와 유아까지도 비방으로 내몰면서 단두대 아래에 머리를 숙이게 하고,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맹수 우리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어린 자식이 함께 순교한 경우로 우리 교회에서 7월 15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키리코스와 그의 어머니 성 율리타 순교자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막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어린 키리코스가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율리타는 어린 자식의 순교에 대한 극심한 아픔을 가지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의 성인들의 예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은 “어린 유아 때부터” 믿음의 크나큰 가치를 자식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유혹에 대처하는 현명한 삶

재미있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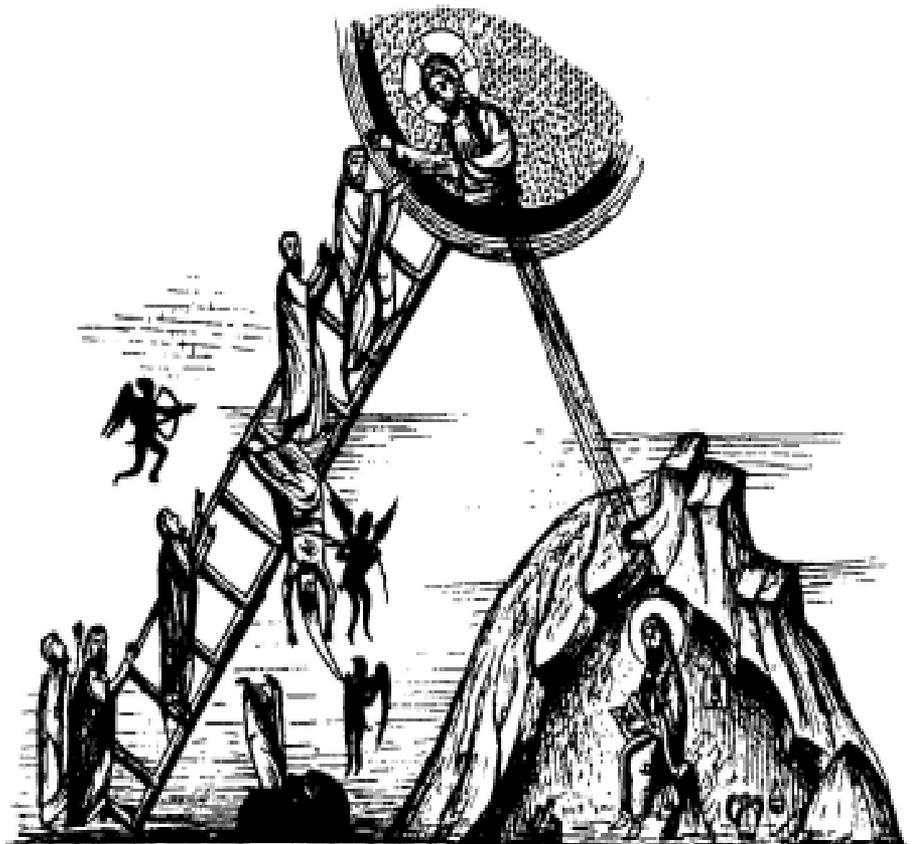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동안 마귀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한 과격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몽땅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잠자코 듣고 있던 한 경험 많은 마귀가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당신 제안은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묘해서 하지 말라 하면 더 기를 쓰고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다리를 부러뜨리면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그러니 가는 것은 방해하지 맙시다. 대신 사람들에게 핑곗거리를 주고 회의감이 들게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보다 세상일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추하거나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직하고 호감이 가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의심케 하고,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만투성이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 자극적이고 화려한 소비재가 최고조로 발달한 요즈음은 더욱 유혹의 손길이 교묘하게 위장하고 접근하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서는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야고보 4,7)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세상의 욕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그 공백 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이런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나의 신뢰에 문제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현명하고 의미 있는 나의 삶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정표로 요한1서 2,15-16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그는 하느님이시다!”

하루는 두더쥐가 다른 동물들에게 말하기를, 부엉이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그것은 바로 그가 어둠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붉은 여우가 물었다.

“부엉이는 낮에도 볼 수 있나요?”

그러자 이 바보 같은 물음에 다른 모든 동물들이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리고는 부엉이에게 한 전령(傳令: 심부름꾼)을 보내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부엉이가 나타났을 때는 한낮이었고, 해는 아주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하느님이시다!” 그러자 다른 동물들도 함께 “그는 하느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부엉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마침내 부엉이는 고속도로에 오게 되었고, 다른 동물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서있게 되었다. 바로 이 순간에 매 한 마리가 하늘을 높이 날다가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다른 새에게 이를 알렸고, 그 새는 바로 부엉이에게 다가가 경고하였다.

“저 앞에 큰 위험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줄래요” 부엉이가 말하였다.

“무섭지 않나요?” 새가 물었다.

“누가?” 부엉이는 차분하게 대답하였는데, 사실은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느님이시다!” 모든 동물이 다시 한 번 더 소리쳤다. 불쌍하게도 동물들은 “그는 하느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 순간에 트럭이 달려와 충돌하였고 모두 죽고 말았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이지만, 누군가 사람을 신격화하여 참된 하느님 대신에 인간의 잘못된 가르침과 의견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아타나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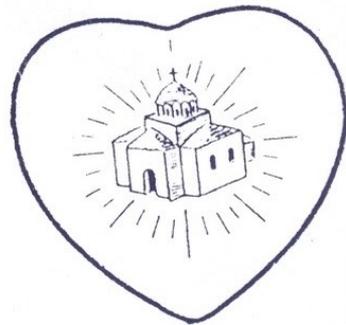


## 주보소식

### 대교구

⇒ 대주교 동정.

지난 7월 4일 토요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신부와 요한 보제와 함께 대만과를 집전하고, 5일 주일에는 주일 성찬예배를 집전하고, 성찬예배 후에는 신자들과 영적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어지는 온라인 성서공부를 2시에 진행하였습니다. 6일 월요일에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 진행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7월 6일 월요일에 한국정교회 초창기 신자였던 이리니 김수영 교우께서 102세로 안식하였습니다. 8일 수요일에는 용미리 부활성당에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용미리 묘지에 안치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리니 교우의 영혼을 의인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 수도원(인근) 부지 매입 헌금.

수도원과 근접해 있는 부지의 매입(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 143-17 510평)을 위한 모금에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수도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교인들이 정성 어린 헌금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모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간예식

7월17일(금) 성 마리아 대순교자, 성 베로니카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